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 1차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Ⅱ)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 | | | | | | |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지정된 글자수(줄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가능)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지우개 사용 가능)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 합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05년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지사는 내무성의 2월 15일자 '훈령 제87호'에 따라, 1905년 2월 22일에 "오키도(隱岐島)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즉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이제 본 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함."이라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다. 이 고시 제40호의 근거가 된 일본 내각결정문의 요지는 첫째 독도에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形迹)이 없고, 둘째 민간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1903년 이래 이 섬에 막사를 짓고 인부를 이동시켜 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상 '점령(occupation)'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 정재민,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나】 1876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모든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으로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그려, 이 '울릉도 외 일도(一島)'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내무성이 1877년 3월 17일자로 태정관에 "울릉도를 관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질의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울릉도는 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후 별지 서류에서 요약 정리한 바, 1696년 정월 제1호 구(舊)정부(에도 막부)의 평의, 제2호 역관에의 통보서, 제3호 조선에서 온 서한, 제4호 이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답서 및 보고서 등과 같이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품의서'를 올렸다. 태정관은 이에 1877년 3월 29일자로, "질의한 바의 울릉도 외 일도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고등학교 한국사』

【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 군청(郡廳)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區域)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즉 독도)를 관할(管轄)할 것.

-『고등학교 한국사』

【라】 1906년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와 지령

-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자로 올린 보고서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 바깥 바다

100여 리 밖에 있는데, 4월 초 4일 진시(辰時) 가량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에 내박(來泊)하여 일본 관인(官人) 일행이 관사에 이르러 스스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라고 말하온 바,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리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라옵니다.」

- 참정대신 박제순이 1906년 5월 20일자로 내린 지령

「보고는 잘 받아 보았다.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고등학교 한국사』

【마】 국제법상 '영토 권원(title to territory)'

국제법상 '점령(occupation)'이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영토가 무주지(無主地)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영토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효적 지배란 일반적으로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 정재민,『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문제1] 제시문 【가】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킨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그 근거가 된 내각 결정문의 요지를 서술한 것이다. 제시문 【나】~【마】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서술하시오.

<12~13줄 (360~39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환(circle)'은 원래 그것이 나온 지역으로 '재수출'될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적응된 외래문화의 산물을 언급하는 데 적절한 은유이다. 예를 들면 고급문화(혹은 교양)와 저급문화(혹은 대중) 간의 순환성(circularity)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이 두 문화 사이의 교류는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가 앞선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적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20세기 일본과 서구 간 문화적 관계의 역사는 이러한 종류의 매혹적인 순환성을 잘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시각 예술에서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을 발견한 시기는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등이 일본을 발견한 것보다 다소 늦게 이뤄졌다. 이미 아카데미가 지배하는 미술 전통에 대항해 혁명 중이던 서구 예술가들은 일본의 사례에서 특히 목판 인쇄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대칭적 구도, 서예적인 선, 평면적인 색상의 사용을 모방했다.

음악의 경우 다케미쓰 도루(武満徹) 같은 일본인 작곡가들이 존 케이지(John Cage)와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 같은 서구 작곡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미 일본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작곡가였다. 푸치니(Giacomo Puccini)는 오페라 「나비부인」(1907)을 위해 일본 음악적 요소를 끌어온 반면,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푸치니의 작품을 번안해 왔다. 최근 한 역사학자는 이를 '귀환(repatriation)'의 연속이라 칭했다.

- 피터 버크, 『문화 혼종성』

【나】 라틴 아메리카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로 편입·수용·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어 새로운 모습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외형적으로 유럽 문화에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 문화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들 고유문화와 접합하여 새로운 매개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사례는 문학이나 예술 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삼바, 자메이카의 레게, 쿠바의 살사 등의 독특한 음악장르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지리적 상황에서 창조된 대표적인 산물이다. 기본 장르인 흑인 노예의 음악과 율동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미국의 음악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종집단은 주변부에 거주하는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문화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낯선 문화, 낯선 사람 또는 이방인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낯선 자로서의 타자를 만날 때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나와 타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성찰해야 한다. 동화주의적 사고방식은 타자를

자신과 같아야 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타 문화권에서 온 이주자에게 그들의 음식, 그들의 언어, 그들의 예절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우리의 음식, 언어, 예절만 강요하는 태도에는 이러한 동일성 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먼저 동일성 논리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나와 다른 문화를 그것의 고유성 속에서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순환성'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요약하고, 이러한 문화적 선순환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12~13줄 (360~39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효(孝)는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효 문화가 특히 발달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와 같은 이념은 존재한다. 비록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효 문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에게도 효 문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효 문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 특히 발달한 게 사실이다. 잘 아는 대로 유교의 이념을 창시한 공자는 특별히 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너희들은 집에서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이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학문에 힘써야 한다."는 말에 나타나듯이, 공자는 '인(仁)'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효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을 받드는 제자들도 효의 이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나아가 국가가 이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효 문화는 더욱더 공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효도 사상이 많은 가정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치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효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적지 않은 노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도 사상은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인'과 '효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 수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은 효도는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이다. 겉보기에는 따뜻한 정이 있고, 가정의 화목을 지탱해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처럼 보인다. 물론 한 때는 가정의 따뜻함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기능의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효도는 자식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드려야 하는 일방적 희생의 위험부담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도 자신의 처지에 걸 맞는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희생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효도는 그것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 적절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한책임론이다. 효도에 대한 생각과 수준이 서로 달라져 서로 사랑해야 할 두 세대는 오히려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한 부엌에 넣는 일은 일종의 문화적 가학행위다. 노인들도 노인들의 인생이 있다. 그들도 부부끼리 뽀뽀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다. 그러나 효도가 이들의 마지막 인생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를 모든 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볍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삶의 권리가 있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도의 이름 아래 빚어지는 억지가 아니다. 노인과 자녀들 모두의 사랑이 상처를 입지 않을 균형 있는 제도다.

-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다】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공자의 나라,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권익보장법' 조항이다. 이른바 '효도법'의 일종이다. 법이 제정된 뒤 시행되어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까지 나왔는데, 뒤늦게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지금 중국사회를 달구고 있다. "얼마나 부모 공양 문제가 심각했으면 법으로 강제까지 하겠나?"는 지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정 내부의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대론도, 또 "객지에서 돈벌이 하느라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자식들의 볼멘소리에 "바빠서 못 온다는데 또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해 달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나?"는 부모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뜨거운 찬반의 논란 속에 장쑤성 우시의 인민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77세 노모가 지난 해 8월부터 문안을 오지 않는 딸과 사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또 춘제 등 1년에 5차례의 명절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문안을 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딸과 사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모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SBS 월드 리포트, 2013년 7월 3일자

[문제3] 제시문 【가】에 나타난 '효의 보편성' 주장에 비추어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 혹은 사건을 초래한 사회적 변화 요인을 3가지 이상 들어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사랑과 효의 조화로운 관계 정립에 대해 논술하시오.

<16~17줄 (480~510자)> [30점]

[문제4] 도덕과 법의 관계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사건이 가지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6~7줄 (180~210자)> [15점]

끝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1차 논술고사 문제 해설(인문계 2)

[출제 의도]

[문제 1]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으로 불법임을 주어진 제시문을 잘 분석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제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제시문이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또 주어진 제시문을 모두 이용하여 문제해결의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 논쟁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없어도,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 2]

본 문제는 국제화 시대 속에서 점차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족 중심적인 분위기에서 배태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파악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이 통용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가치관/세계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했다. 이른바 제시된 [가]와 [나]에 나타나는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문화적 선순환이 '창조적인 문화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서 노출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즉 다양성, 고유성, 민족주의, 동화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3]

최근 존속 살해를 비롯하여 끔찍한 가족 간의 불화를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들이 자주 목격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손상할 수 없는 보편적, 인륜적(人倫的) 규범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이 문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규범적인 측면을 요약해온 효(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양적 전통, 특히 유교적 근본주의가 정착되어 온 우리의 상황에서 효는 강력한 규제적 이념으로 규정, 실천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하는 사

회적 상황에서 유교적 규범으로서 효가 심각히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는 전통적인 효의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변화된 시대상에서 효를 둘러싼 쟁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와 일반적인 사랑 개념 사이의 관계를 통해 효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제는 전통적 규범으로서 효의 지위를 심각히 흔들고 있는 사회적 변화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효와 사랑 사이의 개념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관계 정립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4]

효라는 도덕적 규범을 법으로 강제할 때, 등장하는 문제점을 시사적인 사례로부터 지적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도덕과 법 사이의 관계, 즉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학습하였다는 가정에서, 현실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도덕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양상은 한편으로 사회적 균열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 법의 적용에서 있을 수 있는 법적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가 평가에서 주안점이다.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내각결정문의 요지이다. 제시문 [마]는 국제법상 '점령(occupation)'이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제시문 [가]와 [마]로 볼 때 1905년 일본이 국제법상 독도가 원래 무주지였고, 1903년 이래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점령'이라는 영토 권원에 기초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의 영토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1877년 태정관의 지령을 소개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대한제국이 1900년 울릉도를 군으로 행정개편하고, 그 행정구역으로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대한제국의 칙령을 소개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1906년 일본 관인(공무원)이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울릉군수가 독도는 울릉군 소속인데 일본 관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고하자, 이에 대해 참정대신 박제순이 독도의 일본 영토설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한 행정문서를 소개한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문화교류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그 예로서

서구와 일본의 예술 장르(회화, 음악)간의 '문화 순환성'을 제시했다. 제시문 [나]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동화·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와 고유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매개문화를 창조한다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혼종성을 지적한 예이다. 말하자면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보여주는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 등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선순환은, 편협한 배타주의적 태도가 아닌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조화로운 공생사회를 열어갈 수 있다는 열린 타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열린 세계관은 제시문 [다]에서 노출되는 문제점, 즉 최근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동 과정에서 보여주는 국가간, 민족간, 인종간, 종교간,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다양성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3]

문항에서 제시된 지문은 3개이다. 먼저 [가]는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효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가정 규범으로서 효가 특히 유교 전통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윤리적 규범을 넘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까지 정립되어 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그러한 유교적 윤리 규범으로서 효가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왔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사회규범으로서 불합리성과 변화된 시대에서의 부적합한 측면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처음 등장했던 20여년 전만하여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낳았을 정도로 극단적인 입장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상에 비추어 한 번쯤 고민해야할 내용을 적지 않게 담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사랑과 효를 다시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족 간의 합리적인 관계정립에 입각하여 무한책임 내지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성립되는 효를 지양하여 독립된 인간으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합리적 사랑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시문 [다]는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불효에 대한 법적 강제 조치 기사 들이다. 이 제시문은 제시문 [가]와 [나]의 미묘한 대립을 낳고 있는 사회적 실례로서 제시된 글이다. 문제에서는 일단 규범으로서 효가 위기에 처하도록 한 사회적 변화 요인을 정리하게 하고, 제시문 [나]에서 제기하는 사랑과 효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비판적으로 논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4]

제시문 [다]에 나타난 시사적인 사건을 널리 알려진 법과 도덕이라는 규범적 차이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다]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법적 강제가 개입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법과 도덕의 차이점 및 공통의 연원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예시 답안]

[문제 1]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내각결정문을 보면, 국제법상 '점령'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도에 다른 나라가 점령한 형적이 없다는 것은 독도가 무주지라는 주장이고, 나카이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고, 그 근거로 1692년 조선과의 영토분쟁에 관한 문서가 거론되고 있어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시원적 영유권을 갖고 있었음을 일본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행정개편하고 그 구역으로 독도를 관할케 하였고, 1906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울릉군수에게 통보하였을 때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울릉군 소속으로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조선이 울릉군 소속의 구역으로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즉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전에 이미 조선이 독도에 대한 시원적 영토 권원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효적 지배는 국가의 권력 행사가 핵심이고, 국가의 행위는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카이 요자부로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실효적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2]

제시문 [다]의 타자의식은 타 문화권에 대한 동일성 혹은 동화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형태의 열린 세계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가]는 서구와 일본 간에 이루어진 예술 문화의 순환, 제시문 [나]는 고유문화와 접촉하여 새로운 매개문화를 창조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혼종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고흐 등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인상파 화가들과 일본의 목판 인쇄술의 상호교류, 다케미쓰 도루와 존 케이지, 푸치니 등의 상호교류를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선순환은 여전히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점차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문화 다원주의, 다양성과 고유성, 인권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혈통/민족 중심의 배타적 태도, 동화주의(동일성)의 사고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경계를 넘어선 문화적 선순환과 타문화를 배려하는 타자의식은 "창조적인 문화 생산자" 역할은 물론, 배타주의와 혈통/민족 중심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인종/종교/계층/지역/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 3]

제시문 [가]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효는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 도덕적 규범이다. 물론 유교적 생활윤리가 지배적인 동아시아에서 효는 가치에 있어서나 실천지침으로서 더욱 강고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 이념에 대한 회의가 등장하고, 변화된 시대상에는 알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주장은 효 이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다]는 효의 실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변화된 사회적 요인으로서,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경시 풍조이다. 이는 특히 경제적 욕망 내지 물신주의 경향으로 인해 더욱 더 가속되고 있다. 둘째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이 과거보다 느슨해짐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실천되는 효의 가치가 퇴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서구적 가치가 유입되고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보편화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개인주의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개인적 삶에 더 큰 강조를 하게 된다. 넷째, 부모에 대한 봉양 혹은 보호 의무는 전통적으로 자식의 의무로 간주되었지만, 공적인 복지시스템의 도입은 노인들에 대한 보호 책무를 국가 및 공공 부문으로 이전시켰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공적 시스템을 매개로 재정립되었고, 공적 서비스를 통한 물적인 관계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무론적 윤리적 규범으로 간주되어왔던 효의 가치를 변화된 시대상에서 재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문 [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필자에 따르면, 효는 전통적인 사회적 삶,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한책임에 근거를 둔 순수 이념적 규범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식의 경제적 능력이나 생활근거지의 불일치 등과 같은 현대적 삶의 다양한 변화를 초월하여 효 이념이 여전히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 효도 행위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들 고유의 삶을 방해하기조차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효 이념을 인간 고유의 보편적 가치인 사랑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서로 방해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규범의 정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효의 의무론적 계율이 억지가 되고 서로에게 짐이 된다면, 각 세대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모든 세대 구성원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인간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으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

⇒ 채점 기준

: 사회적 요인을 도출하는 부문(15점)

- 예시를 든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든 경우(감점 0)
- 예시를 든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든 경우(감점 3)
- 예시를 든 4가지 중에서 1가지만 든 경우(감점 6점)
- 그 이외의 예시이지만 타당한 근거를 가진다면 올바른 예시로 간주함.

- 논리적인 표현력 고려

: 사랑과 효 사이의 관계 정립 부문(15점)

- 제시문 [나] 주장에 대한 이해(5점)
- 문장 표현력(5점)
- 논리적 진술(5점)

[문제 4]

제시문 [다]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건은 사실상 극단적인 사례로 간주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법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강제성 여부와 그러한 규범이 작동되는 영역의 차이, 즉 공적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의 차이이다. 불효를 처벌한다는 것은 가정 내 사안에 대해 공적인 강제력의 대표적인 도구인 법이 개입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사회적 균열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내 사안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법이 일관성 있고 공적 권위를 잃지 않을 정도로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율적이고 사적인 영역인 가정의 고유성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성 내지 권위도 손상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 채점 기준(15점 만점)

: 강제성 문제와 법적 적용 불가능성 제시(7)

: 문장 표현력(4점)

: 논리적 진술(4점)